

3선 도지사 vs 3선 군수 ... 살얼음판 승부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6>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은 새누리당 주영순(70)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56) 전 무안군수, 국민의당 박준영(69) 전 전남도지사, 정의당 장문규(48) 전 목포노동자회 회장, 민중연합당 박광순(38) 전 민주노동당 무안군 사무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뒤 표심을 다지고 있다.

이 선거구는 3선 도지사와 3선 기초자치단체장, 여당 현역 비례대표 의원 등이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전남지역 최고 접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방정치권에선 선거 초반 서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구도는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높은 인지도와 국민의당 바람을 안고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주 후보도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선거구에서는 소지역주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 후보는 무안, 박 후보는 영암, 주 후보는 신안 출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이 지역구 유권자 수는 총 15만1969명으로 이 가운데 무안이 6만5384명, 영암이 4만7848명 그리고 신안이 3만8737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무안 출신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서 후보와 박 후보 간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양당은 모두 우세를 정당하고 있다.

더민주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치러진 리턴매치 경선에서 얻은 승리는 표의 결집과 함께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후보 측은 3선 군수를 역임한 뒤 지난 19대 총선을 치르면서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영암·신안에서도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다만 더민주 지지연령층이 주로 20~30대로, 이들의 투표 참여율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분석에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이름	주영순	서삼석	박준영	장문규	박광순
나이	70	56	69	48	38
약력	·현) 국회의원 ·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전) 무안군수 ·전) 전남도의원	·전)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전) 전남도지사	·전) 목포노동자회장 ·전) 금속노조전남시남 지역회장	·현) 광주전남 농민회 조직교육국장 ·전) 민노당 무안군 사무국장
공약	·충남인재 차별방지책 ·목포대의과대학 신설	·국가핵심해양수산 기관 유치 ·영암기업도시 추진	·양식산업육성 ·협단농업수출단지조성	·5시 퇴근법 ·F1 방지법	·지하경제 양성과 위한 지폐 폐지 ·재벌세 도입

서삼석-박준영 양강구도 속 주영순 추격전

주요 후보들 출신지 달라 소지역주의 우려

더민주-국민의당 지지층 달라 투표율 변수로

따라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해 젊은층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가 서 후보를 앞선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이 이어질 수록 지지율이 늘어나 후반에는 안전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박 후보 측은 외지인들이 많은 무안 남양신도시와 대불산단 등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구가 3만에 이르는 남양신도시와 대불산단 노동자의 표심을 얻는다면 서 후보와 대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호재도 있다. 국민의당 연령별 지지층을 보면 주로 50~60대 지지율이 높는데, 이들 연령대는 젊은층들에 비해 투표율이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주 후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출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다. 주 후보는 목포상공회의소회장과 대한상공

회소 부회장을 거친 실물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이래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을 3년간 맡아하면서 지역을 잘 살피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주 후보는 SOC 확충과 기업유치, 지역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경제와 교육 선진화를 내세우며 지역민심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정의당 장문규 후보는 “호남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빼앗긴 노동자 청년들의 일자리, 농민의 삶, 서민들의 복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농민 출신의 민중연합당 박광순 후보는 “소박한 농민들은 국가의 개방정책과 저곡가 정책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농민회 활동을 통해 배우고 고민했던 것들을 농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정치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먹을거리”

윤장현 시장 “삼성車산업 공약 신중 접근 필요”

“정치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먹을거리 즉, 민생이며,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정국에서 말을 아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인 전장사업 공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 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이 광주에 자동차 전장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광주의 미래를 생각해 주는 모습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첨예한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이 이를 부인하고 난감한 입장을 표시하는 등 해당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더민주당의 3조원대 삼성 전장산업 유치 공약을 삼성측이 정식으로 부인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급조 공약이라고 맞서고 있



다. 윤 시장은 “정치권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광주발전과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역작용이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장 부품산업 건은 이미 삼성측에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다. 윤 시장은 “지난 1월 삼성 가전라인의 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사장단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삼성의 프리미엄 가전분야 투자 확대와 함께 삼성의 자동차 전장 부품사업을 광주에 투자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병삼 가전분야 부사장 등이 “직접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수뇌부에 광주시와 시장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당시 대화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흑산공항 연계항로 개설 방안 등 마련

전남도, 개항 대비 용역 발주

전남도도와 신안군이 7일 흑산공항 개항에 대비해 공항 연계항로 개설 등 섬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흑산공항 연계항로(항공·해상) 개설, 숙박 시설 및 음식점 확충 방안, 각종 규제 발굴 등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국비 1835억 원을 들여 신안 흑산면 예리 일원에 길이 1200m의 활주로와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흑산도는 연간 관광객이 40여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적 해양관광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해서만 방문이 가능해,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현재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8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이 1 시간대로 단축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소형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76만여 명에 달하고, 생산유발 효과도 18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내 소·돼지 강해졌다

항체형성률 소 100%·돼지 65%

전남도내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소는 모든 개체수에 항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7일 “울 1/4분기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 분석 결과 돼지 항체 형성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으며, 소의 항체형성률은 10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긴급 일제 접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분기 평균 돼지 항체 형성률이 64.8%로 나타나 지난해(54.1%)보다 10.7%포인트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강진군이 77.1%로 가장 높고, 진도군 75.9%, 나주시 74.2%, 영광군 74% 순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쟁점 및 공약

영암·무안·신안지역 최대 현안은 KTX 호남선 무안공항 경유를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영암 대불산단·F1 경기장 활성화 및 대책, 신안 섬 자원 활성화, 목포대의 대 신설 등이다.

이들 문제는 각 후보자들이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제시했던 현안으로, 아직까지 끝맺음하지 못한 공약들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영암 대불산단·F1 경기장 등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F1경기장 활성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신안 섬 관광자원화, 영암대불산단 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 외에 독특한 공약으로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는 ▲중앙부처 및 공기업 등 호남출신 인사들이 보직·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호남인재차별

KTX 무안공항 경유·F1 경기장 활성화 핫 이슈

방지책 ▲기업유치 및 대불산단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 ▲가스·상수도 확충 및 악취소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 서삼석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에는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편중된 국가 핵심 해양수산기관 지역 유치 ▲영암·무안·신안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최우선 지원 ▲대불산단 공동물류장 설치 ▲차세대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 및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등이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는 ▲무안군 4년 내 시 승격 추진 ▲전북·잠치 등 양식산업 육성 ▲대규모 간척지에 국가 첨단농업 수출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KTX역 신설 ▲중곡자본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 ▲남양도심 광주과

학기술원 분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장문규 후보는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퇴근법 ▲농민월급제 시행 ▲1000억원 이상 투자시 주민투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동물보호 강화 ▲자은~암태~팔굴~안좌 지방도로 확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중연합당 박광순 후보는 ▲민주주의 압적 존재 중편 퇴출 ▲국민감시·정치개입 국정원 해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지폐폐지 ▲0~14세 병역비 국가 책임제 시행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월 20만원) 등을 공약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눈모양빌딩

백원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